

윤대통령 “北 비핵화시 식량·의료·금융 등 담대한 지원”

“독립운동은 현재 진행중...세계시민과 연대해 계승” “무장 투쟁가, 교육자, 민주운동가 모두 독립운동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가면 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 송배전, 항만 지원 등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첫 등장했으며 이날 제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은 그 단계에 맞춰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 칭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처 공동선언계승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속 민간 중심의 도약을 통한 성장과 이를 통한 약자 보호 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공공부문의 긴축을 통한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 민생 경제 정책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부문 성장 및 도약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할애해 경제 정책을 재확인시키며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적 부문은 긴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력은 서민과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러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며, 도약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주권국가를 되찾기 위한 과거 독립운동의 의미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현재 진행중”이라며 “인권,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이 연대해 자유를 수호하고 번영과 평화로 계승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관련해 “과거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났 것이 아니다. 자유국가 건국, 경제성장, 산업 고도화,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계속돼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독립운동 의미를 되살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의 범주를 무장 투쟁가 뿐 아니라 교육 문화 사업 투신, 민주운동 등에 기여한 사람들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독립운동 정신을 세계 평화와 번영으로 계승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도 거론했다.

정승호기자

중도 사퇴 강훈식 “반명 단일화로 당 이끌 수 없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강 후보는 '97(90년대 학번·70년대 생) 그룹' 박 후보와의 '반명 단일화' 선언을 그렸다.

강 후보는 이날 낮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두 번의 연이은 패배 후 집단지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이 두

당대표 경선, 이재명-박용진 후보 2파전 압축

렵기도 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슬도 있는 민주당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자세를 곧추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고 싶었다”며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에게 맡기고, 전 다스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TV토론에 나가면 원의 지역의 설움과 고충을 전해달라고 했던 경남의 지역위원장, 민주당을 젊고 새롭게 바꿔 달라고 응원했던 광주시민,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선 안 된다고 격려했던 강원도의 의원, 총청의 중심이 돼 달라고 했던 원로 당원, 부족한 저를 공개 지지해 준 김영춘·임종석·조용천·이기구·장철민. 무명의 강훈식을 여기까지 끌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대표로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만 우리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 다양성이 숨 쉬며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 바빠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며 “지금까지 보내준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또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을 멈춘 거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그런 것들이 저 예비경선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당원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임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생각한다. 끝내 파란과 이번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이슬기자

광주 찾은 박용진 “호남에 실망 안긴 민주당 바로 세울 것”...표심 호소

“어느 누구의 민주당 아닌 다시 승리하는 우리들의 민주당 만들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광주를 찾아 야당 텃밭 표심에 호소했다.

박 후보는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에 실망을 안긴 민주당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당원만이 민주당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에서 결판을 내려달라. 전당대회 일정은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 70%가 남는다.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들과 전국 대의원들이 변화와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셀프 공천’, ‘당헌 80조 개정’ 등 논란을 예들러 지적하며 “어느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다시 승리하는 우리들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다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온 제가 당 대표가 돼 당을 바로 세우겠다. 민주당이 호남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전북으로 이동해 호남 표밭 다지기를 이어간다.

기동채본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